

September 10, 2014

Africa

동아프리카, 당사국회의 준비

ISAAAfriCenter는 African Biosafety Network of Expertise(ABNE)-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NEPAD)와 협력하여 올해 한국에서 개최될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논의할 문제를 상의하고, 동 아프리카에서의 생명공학 및 바이오안전성 이해관계자들과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루간의 일정으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2014년 8월 20일 에티오피아 다디스 아바바의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는 총 10개국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로 각 국가내의 바이오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생명공학 및 바이오안전성 이슈에 관련된 과학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이날 개회사에서 ABNE-NEPAD의 Sam Timpo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에 뒤쳐지지 않도록 한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COP MOP7 회의 시작 전에 한국에서 2014년 9월 28일에 예정된 아프리카 지역 준비 회의에서 다루어질 논쟁이 될만한 실제적 문제들에 심사숙고한 후 합의했다. 또한, 이 회의를 통한 심의에서는 회의의 논의에 따라 나라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국가별 대표들에게 COP/MOP7에서 논의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결정 권한을 부여할 것이다.

제 7차 생물다양성협약(CBD)의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는 한국 평창에서 2014년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karembu@isaaa.org

Asia and the Pacific

호주에서의 GM에 대한 지지를 기관과 대중매체가 어떻게 신뢰를 예측하는지 보여주는 연구

호주 라트로브대학의 Matthew Marquez 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GM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하였다. 그들은 GM에 대한 매스컴 보도가 많았던 10년 동안 약 8,000여 명의 호주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은 식품에 대한 GM 작물에 비해 GM 동물에 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링 기법을 통해 다양한 식용을 위한 다양한 GM작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과학자 및 규제기관에서 높은 신뢰를 보였지만, 환경 단체에서는 낮은 신뢰를 보임을 나타내었다. 매스컴 보도가 적을때, 과학자 및 감시기관에 대한 대중적 신뢰가 GM동물보다는 식용으로 쓰이는 GM작물의 적용에 대하여 강한 변수로 작용된다.

연구결과를 보려면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pus.sagepub.com/content/early/2014/07/24/0963662514542372.abstract>

Europe

로담스테드 연구진, 오메가3 지방산 강화한 GM카멜리나 수확

오메가-3 지방산이 강화된 첫번째 유전자변형 camelina(양구슬냉이)가 2014년 9월 5일 로담스테드 연구소의 포장시험 재배지에서 수확되었다. 2014년 5월에 시작된 포장시험은 영국에서 GM작물 재배의 돌파구로 최초로 시도된 유전자변형 작물로 건강증진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유전자 변형 작물은 조류에서 추출한 유전자들을 식물에 삽입하여 건강 기능성 오일(오메가-3)을 생산하도록 하였다.

수확 한 식물체들은 건조를 위해 유리온실로 옮겨졌으며, 연구진들은 종자에서 오메가-3 지방산 성분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폐기물은 매립지에서 폐기할 것이다.

GM 종자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은 요구르트와 다른 식품들에 오메가-3 보충제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GM작물의 상용화는 안전성 포장시험 및 안전성심사를 완료하기 위해 최소한 10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fwi.co.uk/articles/06/09/2014/146567/genetically-modified-crop-harvested-at-rothamsted.htm>

Research

생명공학 내건성 벼와 일반 벼의 비교 연구

한국 경북대학교 연구진들은 내건성 벼 품종(HV8과 HV23)의 식물생장과 생식 형질 및 항산화제 특성을 일반 벼 품종(일미)과 비교한 연구결과를 *Agronomy and Crop Science* 저널에 게재되었다.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내건성 GM벼의 종자크기, 무게, 발아력, 뿌리 길이, 식물의 건조 질량, 지엽의 길이와 너비, 초장, 수술 등은 일반 품종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보였다. 각 품종 별 연구는 같은 시기에 실시하였으며, 유사한 처리 조건에서 DPPH(1,1-diphenyl-2-picrylhydrazyl) 탈라디칼 활성 및 폴리페놀 함량에 대한 항산화 특성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CaMsrb2*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유전자변형 벼 품종은 일반 환경에서는 일반품종과 동등했다.

연구 기사를 보려면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jac.12100/full>

Document Reminders

조사 보고서, GM작물 관리에 대한 새로운 자세

영국 더럼 대학은 신흥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멕시코, 인도, 브라질에서 GM작물의 관리 및 규제가 생명공학의 대중 수용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다운로드하려면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dur.ac.uk/resources/ihr/GMFuturosWorkingPaper.pdf>

